

# 경북도, 대표 전략산업으로 ‘가상융합’ 낙점

올해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신설  
콘텐츠 제작, 실증 인프라 확대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해 DX 가속  
기업·인재, 발굴·육성·지원 박차

경북도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산업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설될 예정인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콘텐츠·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상융합산업을 경북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추진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 기업들의 엑스알(XR) 기기 출시가 가속화되면서 가상융합산업이 지역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시장 통계기관 스탯ISTA에 따르면 세계 가상융합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약97조원에서 2030년 약660조



지난해 열린 ‘경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37%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2025년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뒤, 2026년부터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콘텐츠 제작과 실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 공동 제작과 실증이 가능한 국제 가상융합제작허브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영상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가상

융합 콘텐츠 확산을 뒷받침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공장 구축 사업과 물리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조 산업의 구조 전환과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어촌지역 현안 해결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해 포항 구룡포·호미곶 일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난 대응과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플랫폼 육성

도 병행한다. 2025년 문화·산업 융합형으로 전환한 경북 국제 에이아이 메타버스 영상제를 2026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제3회 영상제에서는 총상금 1억원 규모의 에이아이 영상 공모전을 통해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과 창작자를 발굴한다.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영상제 연계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활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지원센터와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글래스 핵심 부품 제조기업과 게임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이어가고, 대학생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가상융합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과학국장은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북이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진주시

####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운영

경남 진주시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곳에서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지역에서는 6개 지역아동센터(도담, 동진주, 비전, 셀리, 이현, 아이마당)가 참여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 경주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인상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경주시지역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4만 9052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93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기장군

####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기장군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한 ‘2026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186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 종합 검진과 뇌혈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에 따라 검진비가 차등 지급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 8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 외 40세 이상 군민은 70만 원을 지원받고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부산시

#### 신중년 600명 일자리 창출

부산시는 50~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일자리’, 신중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일자리’,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일자리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해 240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남도, 지난해 133억弗 규모 방산수출 부산시, ‘CES’서 418억 규모 계약추진

### 국내 전체 방산 수출액 80% 이상 수출 가속화 위해 원스톱 지원 강화

경남도는 관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지난해 13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수출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방산 수출액 152억 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 시장 확대와 대형 무기체계 수출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올해 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지원,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제고, 경남방산수출지원단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확대에

대응해 경남형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부터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각각 495억원씩 투입한다.

중소조선소의 MRO 산업 전환을 위해 함정 정비용 야드 시설 임차, 함정 정비 자격(MSRA) 인증 취득, 미 해군 함정 MRO 대응 통합 공급망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공모로 사업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총 9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남을 아시아·태평양 함정 MRO 거점이자 글로벌 방산 수출 핵심 지역으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역대 최대’

부산시는 지난 6~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분야 관련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CES에서 통합부산관을 운영하며 총 443건의 수출 상담과 2867만 달러(약 418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1년 내 계약 성사 예상 금액)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사와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실적도 65건에 달했다.

이번 CES에서 부산지역 기업들은 제품 전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항만 등 시가 중점 육성 중인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과 상용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사 기간 현대차그룹 전시관을 방문해 서비스 로봇과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중인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 삼성관을 둘러보고 있다. /부산시

살펴보고 해당 기술과 부산시가 육성 중인 로봇 산업 간 협력 및 실증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는 항만·물류·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실증 환경을 갖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로봇·AI 융합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기업들도 투자유치와 글로벌 협력, 기술검증(PoC)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포항시, ‘24시간 화상치료 센터’ 시범운영

오는 3월부터 3년간 운영

경북 포항시가 시민 생명 보호와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화상 치료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상 전문 병원이 없어 대구 등 다른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만 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에서 하루 평균 1건 꼴인 연평균 3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역 화상 환자가 매년 5680명이 발생하지만 전문 치료 센터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철강·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 산업의 특성으로 화상 사고 위험이 크고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재난환경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24시간 진료 가능한 화상 치료 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1개를 선정하고 3월 문을 열어 2028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시비 21억 6000만·의료기관 자부담 14억 4000만원)이다. 시는 선정된 의료 기관에 화상 전담 의료 인력(의사 2명·간호사 6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영주시, 전통시장 5개소 활성화 지원

###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영주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5개 시장이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영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

련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상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이다.

정교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